

멕시코 여객기 불시착...101명 전원 '기적의 생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멕시코 북부 두랑고 주에서 승객과 승무원 101명이 탑승한 아에로멕시코 소속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고 AP·AFP·DPA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 사고로 중상자를 포함, 최소한 80여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페르난도 리오스 보건당국 대변인은 18명이 제너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12명은 위독하다고 밝혔다.

일부 부상자는 있으나 사망자가 없다는 점에서 "놀라운 생존스토리"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밝혔다.

호세 아이스푸로 두랑고 주지사도 트위터에 사망자가 없다고 확인하고, 49명이 입원했으나 일부는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친인척을 찾기 위해 공항으로 돌아갈 만큼 상태가 괜찮았다고 전했다.

사고 여객기는 승객 97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채 두랑고 주를 떠나 멕시코 시티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사고 순간을 두고선 당국 관계자와 목

최소 80명 부상·12명 위독 "조종사 크게 다쳐" 우박 내리는 악천후 불구 이륙 시도 비상 착륙

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린다. 일부는 사고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했다고 밝혔으나 일부는 이륙은 하지 못한 채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 도로에서 이탈했다고 전했다.

DPA통신은 일부 언론을 인용해 여객기가 비상 착륙을 했다고 보도했지만, 아이스푸로 주지사는 여객기가 활주로에 강하게 충돌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솔라노 메디아 두랑고 시 시민방어청장은 현지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고 여객기가 이륙하려다가 활주로 끝에서 몇백 야드 가량 떨어진 지점에 앞부분부터 처박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부분이 먼저 충격을 받아 조종사가 가장 크게 다쳤다"고 전했다.

연방 교통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륙하고 잠시 지나 사고를 당했다"고 밝

혔다. 이처럼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는 않았으나 사전 조사에선 "악천후가 원인"으로 지목했다고 두랑고 공항을 포함해 멕시코 내 12개 공항을 운영하는 업체인 OMA 아에로푸에르토는 밝혔다.

당국 관계자와 목격자들도 해당 여객기가 폭풍 속에서 이륙을 강행했다며 이날 심지어 구슬 크기의 우박이 날아다녔다고 전했다.

아이스푸로 주지사는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폭풍도 불었다. 이륙을 취소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럴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항공사와 승객들을 인용, "우박을 동반한 폭풍이 심한 가운데 여객기가 이륙하자마자 추락했다"면서 "이후 여객기 동체는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 휩싸인 비행기 지난달 31일 멕시코 중북부 두랑고 지역의 아에로멕시코ERJ190 여객기 추락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들이 인명구조 작업에 나서고 있다.

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승객들은 이륙 당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항공기 전문 사이트인 '플레인스포터스'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는 브라질에서 제작된 중형 엠브라에르 190 기종

으로, 지난 10년간 운항했으며 다른 2개 항공사를 거쳐 아에로멕시코로 인수됐다. /연합뉴스

중국 하반기 경제운용 '안정유지' 총력

정치국 회의서 온건 통화정책·적극 재정정책 강조

중국 지도부가 베이징(北) 회동을 앞두고 정치국 회의를 열어 하반기 중국경제 운용의 방향을 미국과의 무역전쟁 충격에 맞서 안정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전날 집단학습을 겸한 정치국 회의에서 하반기 중국경제를 취업, 금융, 무역, 외자, 투자의 안정세와 함께 예상에 맞는 경제운용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국 최고위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중국의 경제운용은 평온함 속에 일부 변화가 생기며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외부환경에 뚜렷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회의는 이에 따라 하반기 중국 경제사회의 안정유지라는 목표 실현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것이라며 "표적성이 강한 맞춤형 조치를 취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특히 미중 무역전쟁에 맞춰 하반기 중국경제 운용의 방향을 전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함께 온건하고 건전한 경제발전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단점 보완을 현재 진행 중인 공급측 구조개혁의 중점 과제로 삼고, 금융리스크 예방 해소와 실물경제의 활력 유지를 결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혁개방 추진, 부동산시장 문제의 해결, 민생보장, 사회안정도 하반기 과제로 꼽혔다.

한편 최근 시 주석의 당내 리더십이도 전을 받고 있다는 외부 관측과 관련해서도 이날 회의는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연말까지 군 영리활동 금지" 시진핑, 목표 기한 단축 시사

최근 집권 2기 첫 해외순방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귀국해 처음 주관한 당내 교육행사에서 연말까지 중국군 영리활동 전면금지를 촉구했다고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1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7차 집체학습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 2년간 군대는 당 중앙, 중앙군사위 결정을 시행하고 난제 해결에 있어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뒀다"고 치하하고, "올 연말까지 군대가 영리활동을 중단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또 "군대와 영리활동을 분리하려는 목표가 달성돼 더욱 엄격한 당·군대 관리 및 전투태세 확립이라는 군대 본연의 임무 집중이 가능해졌다"며 "설정된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양군사위 주석을 겸하는 시 주석은 집권 이후 군 개혁의 하나로 군대 영리사업 금지를 추진해 온 만큼, 이날 발언을 앞당기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인 해방군보에 따르면 중국군은 올 상반기 말을 기준으로 군부대 유희지 임대사업이나 병원 운영 등 영리사업 10만6,000여 개를 중단했다. /연합뉴스

'사임설' 켈리 백악관 남는다

트럼프 요청에 2020년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오는 2020년까지 현재의 직(職)을 유지할 것을 주문했고 켈리 실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켈리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전날 백악관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WSJ이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했다. 2020년까지 비서실장직을 유지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요청했으며, 자신이 이를 수용했다고 켈리 실장이 공개했다는 것이다. 켈리 실장은 전날 취임 1주년을 맞았다. WSJ은 켈리 실장이 2020년까지 자리를 유지하면 역대 백악관 비서실장 중 최장수 실장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일본 올해 더위 사망자 벌써 125명

5만7천명 응급후송...역대 기록 5만8천명 넘어설 듯

기록적인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는 일본에서 올해 봄 이후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12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일본 총무성 소방청이 전날 발표한 온열질환 통계에 따르면 4월30일~7월29일 온열질환으로 병원에 응급후송된 사람은 5만7,534명이었으며 이 중 125명이 사망했다.

올해 응급후송자 수가 작년(5월1일

~9월30일)의 5만2,984명을 이미 앞지른 것이다.

응급후송자 수는 2013년(6월1일~9월30일) 5만8,729명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았었는데, 올해는 이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도쿄(東京)가 4,6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사카(大阪) 4,345명, 아이치(愛知) 4,254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사망자는 사이타마(埼玉)에서

가장 많은 12명이 발생했다.

응급후송자 중 1,449명은 3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상자였다. 고령자는 전체의 48.7%를 차지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올해 여름 유독 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는 사이타마(埼玉)현 구마가야(熊谷)시의 기온이 41.1도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열도 전체가 35도 이상을 오르내리는 맹렬 더위로 신음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일본 내에서 상대적으로 서늘한 편인 니가타(新潟)현에서 낮최고기온이 기상 관측 사상 최고인 39.5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8-72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주택법」 제15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동구 산수동 산67-1번지 일원 한국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법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일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 사업개요**
가. 사업명: 산수동 한국아파트 신축공사
- 광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나.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67-1번지 일원
다. 면적: 사업면적 20,342㎡ (제2, 3종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7,323㎡)
-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2018. 08. 02 ~ 2018. 08. 16 (14일간)
나. 공람장소: 광주광역시 동구청 4층 건축과, 산수2동 주민센터
다. 의견제출 서식: 공람장소 비치
- 주민의견 제출**
가. 제출장소: 광주광역시 동구청 4층 건축과
나. 제출방법: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062-608-28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입·분양·모임

☎ 062) 720-1016, 1017
☎ 062) 720-1020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저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월간 전남매일
구독문의 062) 720-1006

NAVER 드림꽃도매 검색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경조화환 6만원

시외 기타지역 추가비용 발생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택배성 302-0316-649511

오피스텔 "급매"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 전망좋은, 즉시 입주가
- 내부 시설 완료, 사무실전용
- 8층, 33평 - 급매8,400만원
- 2층, 38평 - 매매9,400만원

문의. 010-6834-7400